

## 내담자의 권리에 대한 고찰

김인규(金仁奎)\*

### 논문 요약

상담의 전문화에 따라 상담 윤리와 내담자의 권리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상담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나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상담관련 학회의 윤리강령에 제시된 내담자의 권리를 분석하고 그 권리의 보호방법을 살펴보았다. 상담과정에서 상담자가 고려해야 할 내담자의 권리로서 상담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권리, 상담과정에 참여할 권리, 의사결정의 권리, 동의능력 결여 시의 권리 등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상담구조화, 주지된 동의, 윤리문제 해결절차 수립, 상담자 교육 및 연구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내담자 권리에 대한 쟁점과 내담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 주요어 : 내담자의 권리, 상담 윤리, 주지된 동의, 윤리 기준

### I. 들어가는 말

1950년대 국내에서 상담이 학교 생활지도의 한 영역으로 시작된 이래(유정이, 1997) 상담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상담전문인력의 양성과 활동이 많아지면서 전문적으로서의 상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직의 일반적 특성으로 제시되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 사회봉사, 독점권, 면허와 자격기준, 전문직 단체, 자율성, 윤리강령과 자기규율(명대정, 2000)

\* 한국청소년상담원 조교수

에 비추어볼 때 국내에서 상담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상담관련 국가자격제도 실시, 상담관련학회의 상담윤리강령 제정, 상담 전문가 협회 조직, 학회 상담 자격의 국가공인자격화 시도 등을 통해 상담의 전문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담의 전문화에 따라 상담윤리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제기되고 있다(최혜림, 2002; 김봉환, 2002). 윤리는 공정한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해야 할지를 결정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 어떠한 규율이나 규칙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은희, 1991). 상담을 받고자 하는 내담자들은 개인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고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에 상담자들은 내담자의 복지와 권리를 존중하며 자신의 상담활동이 내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상담자가 자신의 상담활동을 윤리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활동 대상인 내담자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여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즉 내담자 권리의 어떤 부분을 침해하는 것을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볼 것인가를 기준으로 상담에서의 윤리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활동에 대한 주요 상담관련 학회의 윤리강령은 대부분 전문에 상담활동을 정의하면서 내담자 복지를 우선하는 상담의 특성을 언급하고 있다. 한국상담학회 윤리강령은 '상담자는 각 개인의 가치, 잠재력 및 고유성을 존중하며 다양한 조력활동을 통하여 상담수혜자가 전인적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보다 바람직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헌신한다' 고 하였으며,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윤리강령은 '학회 회원들이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다양한 조력활동을 통해, 인간 개개인의 잠재력과 독창성을 신장하여 저마다 자기를 실현하는 건전한 삶을 살도록 돕는데 헌신한다'고 하였다. 미국상담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서는 '협회의 회원은 삶의 전반에 걸쳐 인간의 발달을 촉진하는데 공헌하며 사회 속에서 다양성을 인식하고 개개인이 지니는 가치, 존엄성, 가능성과 고유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중다문화적 접근을 시도한다'고 하였으며, 미국 학교상담자학회 윤리강령은 '학교 상담자는 각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지원하며 학교 프로그램의 구조 안에서 내담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하면서 그들의 전문적인 기술을 사용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특히 미국 학교상담자학회의 윤리적 기준은 학회원의 활동에 '내담자의 권리 보호'를 명시할 뿐 아니라 전문에 개인의 존중받을 권리, 발전의 권리, 선택의 권리, 비밀보장의 권리 등을 상담과정의 기본적인 주의(tenet)로 제시하여 여기에서 상담자의 전문적인 책임을 도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복지를 도모하고 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은 모든 상담 활동이 목적하는 바이지만 이 과정에서 지키고자 하는 내담자의 권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내담자의 성장을 위해 상담자가 봉사한다는 상담활동의 시혜적

특성으로 인해 상담에서 내담자에게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상담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상담이 전문직으로 발전하면서 상담이 내담자를 위한 봉사로서 이루어지는 시혜적 특성보다는 전문적 활동에 상응하는 경제적, 사회적 적절한 대우를 받는 상호교환의 특성이 강조되므로(명대정, 2000) 상담자가 내담자의 정당한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상담관련학회의 윤리규정에 나타난 내담자의 권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내담자의 권리를 규명하고 그 보호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윤리규정은 상담자가 보호해야 할 내담자의 권리로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가? 둘째, 내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담자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윤리규정은 국내 대표적 상담관련단체인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카운슬러협회 의 윤리강령과 미국상담자협회(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미국학교상담자협회(American School Counselor Association) 의 윤리강령이다.

## II. 내담자의 권리

상담윤리규정은 상담과정에서 상담자가 고려해야 할 윤리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내담자의 복지를 위한 상담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기준역할을 하고, 상담자 자신을 보호하고 전문인으로서의 신분보장을 위한 근거의 역할,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활동을 위한 행동지침역할을 한다(이장호, 1995; 김은희, 1991). 내담자의 권리가 전체 상담윤리규정 중 어떤 위치에서 다루어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상담관련학회의 상담윤리규정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표 1>.

여러 상담윤리규정은 대체로 유사한 구조 아래 각 학회의 관심영역을 약간씩 다르게 강조하고 있다. 윤리규정의 내용은 사회와의 관계, 상담자 자신과의 관계, 내담자와의 관계, 전문적 활동, 윤리문제 대처 등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와의 관계 영역은 상담자가 속한 기관, 지역사회, 국가 및 내담자 관련 인물과 기관(내담자가 학생일 경우 부모와 학교), 동료 상담자 및 전문가 집단, 다른 전문직 집단 등과의 관계를 다루는 내용으로서 한국상담학회와 한국카운슬러협회의 윤리규정은 이 영역을 가장 앞에 두었고, 미국학교상담자학회는 전체 8개 항목 중 4개 항목을 이 영역에 할애하여 상담자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상담자 자신과의 관계 영역은 상담자의 전문적 능력, 상담직에 대한 태도, 상담관련 자격증 등을 다루는 내용으로서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윤리규정은 이 영역을 가장 앞에 두어 상담자의 전문성을 강조하였다. 내담자와의 관계 영역은 상담에서의 비밀보장과 예외 상황, 내담자의 권리, 내담자의

&lt;표 1&gt; 각 윤리규정의 내용 비교

영역	항목	한국상담 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	한국카운슬러 협회	미국상담자 협회	미국학교 상담자학회
사회와의 관계	사회적 관계	1. 사회관계 8. 타전문직과 의 관계	2. 사회적 책임	1. 사회관계 6. 타전문직과 의 관계	D. 다른 전 문직과의 관계	B. 부모에 대한 책임 C. 동료와 전문가 협회에 대한 책임 D. 학교와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 F. 전문직에 대한 책임
상담자 자신과의 관계	상담자의 전문성	2. 전문적 태도	1. 전문가로서 의 태도	2. 전문적 태도	C. 전문가적 책임	E. 자기에 대한 평가
내담자와 의 관계	정보보호	3. 정보의 보호	5. 정보의 보호	3. 개인정보의 보호	B. 비밀 보장	
	내담자 복지	4. 상담수혜자 의 복지 5. 상담관계	3. 인권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 4. 상담관계	4. 내담자의 복지 5. 카운슬링 관계	A. 상담 관계	A. 학생에 대한 책임
전문적 활동	상담연구	6. 상담연구	6. 상담연구		G. 연구 및 출판	F. 전문직에 대한 책임 중 2
	심리검사	7. 심리검사	7. 심리검사		E. 평가·사 정, 해석	
	교육 및 수퍼비전			1. 전문가로 서의 태도 중 다.	F. 교육, 훈 련 및 수 퍼비전	
윤리문제 대처	윤리문제 대처	8. 타전문직과 의 관계 중 (2)	8. 윤리문제 해결	6. 타 전문직 과의 관계 중 (2)	H. 윤리 문제의 해결	G. 기준의 준수 H. 자원

복지, 내담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을 다루는 내용으로서 미국 상담자협회와 미국 학교상담자 학회의 윤리규정은 이 영역을 가장 앞에 두어 내담자의 권익보호를 강조하였다. 전문적 활동 영역은 상담에 대한 연구, 심리검사의 사용, 상담자의 교육과 수퍼비전 등을 다루는 내용으로서 한국카운슬러협회의 윤리규정은 이 영역을 다루지 않았으며 한국상담심리학회와 미국 상담자학회의 윤리규정은 상담자 교육과 연수 부분을 별도의 항목으로 제시하여 다른 학회의 윤리 규정보다 상담자 교육과 훈련을 강조하였다. 윤리문제 대처 영역은 윤리문제 발생시 대처 절차와 방법을 다루는 영역으로서 미국상담자협회와 미국 학교상담자학회의 윤리규정은 매우 구

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상담학회와 한국카운슬러협회의 윤리규정은 비전문인의 윤리적 행동에 대한 대처만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의 주제인 내담자의 권리는 상담윤리의 세 번째 영역인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다루어 지는데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상담심리사 윤리강령, 미국상담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은 개별 항목으로 지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미국 학교상담자 협회의 윤리기준은 전문에 각 개인의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상담학회 윤리강령, 한국카운슬러협회의 윤리강령은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상담심리사 윤리강령은 3. 인간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 영역에서 내담자 복지, 다양성 존중, 내담자의 권리 등을 다루고 있다. 그 중 내담자의 권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내담자는 비밀유지를 기대할 권리가 있고 자신의 사례기록에 대한 정보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상담 계획에 참여할 권리,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는 거절할 권리, 그런 거절에 따른 결과에 대해 조언을 받을 권리 등이 있다.
- (2)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에게 상담에 참여 여부를 선택할 자유와 어떤 전문가와 상담할 것인가를 결정할 자유를 주어야 한다. 내담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제한점은 내담자에게 모두 설명해야 한다.
- (3) 미성년자 혹은 자발적인 동의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내담자일 경우, 상담심리사는 이런 내담자의 최상의 복지를 염두에 두고 행동한다.

미국상담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은 첫 번째 영역인 A. 상담관계에서 내담자의 복지, 다양성의 존중, 내담자 권리, 다른 카운슬러의 상담을 받고 있는 내담자, 개인적 요구 및 가치, 이중관계, 내담자의 성관계, 다수의 내담자, 집단상담, 상담료, 종결 및 의뢰, 컴퓨터 기술의 이용 등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 내담자의 권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상담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상담이 시작될 때와 상담과정을 통해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상담서비스의 목적, 목표, 기법, 절차, 한계점, 유익한 면과 위험 부담 및 기타 관련된 정보 등을 알려준다.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진단의 함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검사도구들의 이용 및 결과보고, 검사료, 검사료청구절차 등을 확실히 알도록 한다. 내담자에게는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슈퍼비전이나 상담팀 전문가들과의 관련에서 발생하는 비밀보장의 제한점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즉 자신의 사례기록과 관련하여 명확한 정보를 확보할 권리, 진행중인 상담계획에 참여할 권리, 추천하는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 그리고 거절할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결과에 대한 조언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

#### b. 선택의 자유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관계에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고 싶은지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내담자가 선택하는 과정에 어떤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한다.

#### c. 동의능력의 결여

내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자발적으로 상담을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일 경우 상담자는 내담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미국 학교상담자학회의 윤리적 기준은 별도의 항목으로 내담자 권리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문에 다음과 같은 내담자의 권리를 상담과정의 기본적인 주의(tenet)로 제시하고 있다.

1. 각 사람은 독특한 인간 존재로서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사람, 성격, 신념, 활동에 따른 편견없이 상담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각 사람은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스스로 발전할 권리가 있다.
3. 각 사람은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이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4. 각 사람은 사생활의 권리가 있으므로 상담관계는 비밀유지와 관련된 모든 법적, 정책적, 윤리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상에서 제시된 내담자의 권리는 상담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권리, 상담과정에 참여할 권리, 의사결정의 권리, 동의능력의 결여시 권리 등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상담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권리

내담자는 자신이 참여하는 상담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다. 각 윤리강령은 비밀 유지 및 비밀보장의 한계와 관련된 정보, 사례 기록에 대한 정보, 상담의 목적, 목표, 기법, 절차, 한계점, 유의한 면과 위험부담 및 기타 관련정보, 진단의 의미, 검사도구들의 이용 및 결과 보고, 검사료, 검사료 청구절차 등에 대한 정보 등을 내담자가 얻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상담과정에 참여할 권리

내담자는 상담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다. 각 윤리강령은 내담자가 상담계획 수립 및

진행 중인 상담계획을 논의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의사결정의 권리

내담자는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권리를 지닌다. 각 윤리강령은 내담자에게 상담 참여 여부를 선택할 권리, 어떤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고 싶은지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 내담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 상담자가 추천하는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 서비스 거절에 따른 결과에 대해 조언을 받을 권리 등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동기능력의 결여시 권리

각 윤리규정은 내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자발적인 동의를 할 수 없는 사람일 경우 내담자의 권익과 복지를 최대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여 위의 세가지 권리를 상담자 또는 보호자가 내담자를 위해 대리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Ⅲ. 내담자 권리보호 방법

선언된 권리는 구체적인 지침과 제도적 장치에 의해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상담구조화, 주지된 동의, 윤리문제 해결절차 수립, 상담자 윤리교육 및 연구강화의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상담구조화

상담자와 상담기관은 내담자에게 알려줄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상담구조화 또는 상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내담자에게 상담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태도를 갖도록 할 수 있다(김계현, 1995; 이장호, 1995). 그러나 상담구조화 내용으로서 내담자의 권리 부분은 잘 다루어지지 않았다. 김인규(2002)는 상담구조화 문헌 8종과 자료 16종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는데 여기에서 내담자의 권리를 별도의 항목으로 다룬 문헌이나 자료는 없었다. 다만 김인규(2002)는 상담전 내담자교육의 요목으로서 마음달래주기, 상담의 의미, 상담자 역할에 대한 이해, 내담자 역할에 대한 이해, 상담과정에 대한 이해, 내담자의 권리에 대한 이해, 기타사항 등을 제시하여 상담구조화에 내담자의 권리 부분을 포함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도 실제 상담전 내담자 교육 자료를 제작하면서도 이 영역이 교육내용의 중요

도에서 낮게 평가되어 교육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상담을 시작하면서 내담자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상담구조화의 중요한 영역으로서 상담전 교육을 통해서든지 상담자의 직접적인 구조화를 통해서든지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내담자는 상담자와 동등한 관계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누릴 수 있으며, 상담자도 내담자의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상담관련 학회에서는 '당신의 정신건강 권리(Your Mental Health Rights)'라는 내담자의 권리에 대한 선언을 명문화하여(Pope, K. S., & Vasquez, M. J. T., 2001) 내담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내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권리 선언은 미국 결혼 및 가족 협회, 미국 상담 협회, 미국 가족 치료 연구회, 미국 간호사 협회, 미국 정신의학회, 미국 정신 간호사 협회, 미국 심리 학회, 임상 사회사업 연맹, 사회 사업가 협회의 참여로 1997년 제정되었으며, 알권리, 비밀보장, 선택, 상담결정, 동등한 대우, 비차별, 사용의 이익, 이익계획, 상담검토, 상담자의 책무성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 2. 주지된 동의

주지된 동의(informed consent)는 내담자는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릴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기초한 개념으로서(Arthur & Swanson, 1993), 의료분야 실행지침에서 전해져 온 것이다. 의료분야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실시할 의료적 행위에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한다. 환자들은 왜 의사가 이 치료방법을 선택했는지, 다른 어떤 대안적인 치료가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의사가 만약 이러한 설명을 사전에 하지 않고 환자의 동의없이 치료를 실시했다면 그것은 의료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만약 시술이 잘못될 경우 심각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이러한 주지된 동의의 원리가 정신건강분야까지 확장된 것이다(안현의, 2002).

내담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알려줄 것인가에 대해 Hass(1991, 안현의 2002에서 재인용)는 상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부정적인 측면, 상담 진행의 행정적 절차, 내담자가 받게 될 상담의 이론적 토대와 상담방법에 대한 개략적 설명, 비밀보장의 한계 등을 제시하였다. Arthur 와 Swanson(1993)은 상담자의 배경, 상담절차, 비밀보장과 예외상황 등을 문서화하여 내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Smith(1990, Collins, 1988에서 재인용)는 내담자에게 동의를 받는 서면양식을 개발하였는데 그 내용으로 상담에 대한 설명, 비밀보장과 예외 설명, 상담 진행 과정, 내담자의 자유와 의무, 상담료 및 지급방법, 약속의 취소,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 이의사항 제기, 내담자의 자필 사인 등을 포함시켰다. 미국상담협회의 윤리강



령은 A.3 내담자의 권리 a. 상담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에서 내담자가 알아야 할 사항들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상담서비스의 목적, 목표, 기법, 절차, 한계점, 유익한 면과 위험 부담 및 기타 관련된 정보, 진단의 함축적 의미, 검사도구들의 이용 및 결과보고, 검사료, 검사료 청구절차, 비밀보장의 제한점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내담자의 동의는 충분한 지식에 기초해야 하고 자발적이어야 하며, 합리적이어야 한다(Bray, Shepherd & Hays, 1985; Collins, 1995). Bray 등(1985)은 내담자의 능력(capacity), 이해(comprehension), 자발성(voluntariness) 등을 주지된 동의에 필요한 법적 요소(legal elements)로 제시하였다. 능력이란 내담자가 이성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의미하며, 이해란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는 명료한 용어로 상담의 이익과 위험이 설명되었는가를 의미하며, 자발성이란 내담자가 자유스럽게 동의를 하는가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동의하는 내담자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며(mentally competent) 법적으로 그런 동의를 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이러한 동의능력을 판단하여야 하며 내담자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할 경우 내담자의 최상의 복지를 염두에 두고 행동할 것을 각 윤리강령은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내담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이전에 한 상담에 대한 동의를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Collins, 1995).

이러한 내담자의 주지된 동의 절차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알리고 내담자는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게 되어 내담자의 권리와 그 보호에 대한 상담자와 내담자간에 일치하는 이해를 갖도록 하여 이후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의 권리가 보호받도록 하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 행정적 조치가 될 수 있다.

### 3. 윤리 문제 해결절차 수립

내담자의 권리보장이나 상담자의 윤리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절차와 담당기관을 정하고 이를 내담자와 상담자에게 알려주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각 상담관련 학회 및 상담기관은 상담에서의 윤리문제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문제의 제기 방법, 처리 절차, 결과 통보 및 처리 방법 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각 학회의 윤리규정은 이를 개략적으로만 다루고 있으며, 미국상담학회의 윤리규정은 상세하게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윤리문제 발생 및 처리의 각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의 발견 단계이다.

상담자는 비전문인의 윤리적 행동에 관해 중대한 의문을 발견했을 경우 그런 상황을 시정

하려는 노력을 할 책임이 있다(한국상담학회 윤리강령 8항 2조, 한국카운슬러협회 윤리강령 6항 2조).

상담심리사가 윤리적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유발하는 근거가 있을 때 윤리 위원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강령 8항 나 조 (1)).

카운슬러들은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윤리적 문제와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볼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미국상담협회 윤리강령 H.2, a)

각 윤리규정은 상담자들이 자신과 타인의 상담활동의 윤리적 행동에 민감하여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이 발견될 때 그것을 시정하려는 노력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윤리위원회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둘째, 윤리적 문제에 대한 자문 단계이다.

특정상황이나 조치가 윤리강령에 위반되는지 불분명할 경우, 상담심리사는 윤리 강령에 대해 지식이 있는 다른 상담심리사, 해당 권위자 및 윤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강령 8항 나 조 (2)).

특별한 상황이나 조치절차의 윤리규정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확실할 경우 카운슬러는 다른 카운슬러, 즉 윤리규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자나 동료 혹은 적합한 권위자와 협의할 수 있다(미국상담협회 윤리강령 H.2, b).

실현가능하다면, 상담자는 그 상황이 윤리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비밀스럽게 동료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미국 학교상담자학회 윤리기준 G항 1조).

각 윤리규정은 상담자가 발견한 윤리적 문제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위해 동료 상담자, 적합한 권위자, 윤리위원회 등에 자문 및 상의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학교상담자학회의 윤리기준은 이 과정이 비밀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여 이 과정에서도 내담자 및 상담자의 비밀보장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셋째, 비공식적 조치의 단계이다.

다른 상담심리사의 윤리위반에 대해 비공식적인 해결이 가장 적절한 개입으로 여겨질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보고하여 해결하려는 시도를 한다(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강령 8항 나 조 (4)).

다른 카운슬러가 윤리적 규정을 위반하고 그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카운슬러는 비밀보장권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카운슬러와 그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미국상담협회 윤리강령 H.2, d).

가능할 때에는 언제나 상담자는 그의 행동이 문제가 된 동료 상담자에게 직접 가서 불만스러운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찾아 보아야 한다(미국 학교상담자학회 윤리기준 G항 2조).

각 윤리규정은 다른 상담자의 윤리적 문제를 발견했을 때 우선 윤리적 문제행동을 한 당사자에게 비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여 해결을 시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미국 상담협회 윤리강령은 비밀보장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공식적 조치의 단계이다.

명백한 윤리강령 위반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그 방법이 부적절하다면 윤리위원회에 위임한다(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강령 8항 나 조 (5)).

비공식적으로 처리된 해결책이 적절하지 않았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카운슬러는 타당한 근거하에 의심스러운 윤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 해당 주나 국가윤리위원회에 알린다. 단 이러한 조치가 비밀보장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미국상담협회 윤리강령 H.2, e).

해결책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도출될 수 없다면, 상담자는 학교나 학교 구역 내에서 상요할 수 있는 채널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한 채널에는 비공식적 절차, 공식적 절차 두가지 모두 포함된다(미국 학교상담자학회 윤리기준 G항 3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윤리위원회에 검토를 위한 의뢰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역 상담자 협회, 주 상담자 협회, 전국 상담자 협회(미국 학교상담자학회 윤리기준 G항 4조).

미국 학교상담자학회 윤리위원회는 교육적이고 자문적인 기능을 할 뿐 윤리적 문제에 대한 고소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국가적인 수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미국상담협회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고소장 제출 절차는 미국상담협회 윤리 위원회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미국 학교상담자학회 윤리기준 G항 5조).

각 윤리규정은 비공식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이를 공식적으로 처리할 기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단계에 있어서 한국의 경우는 학회의 윤리위원회라는 한 단계만이 있으나 미국의 경우에는 지역, 주, 전국 또는 국가 수준으로 여러 단계의 공식적 조치 단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상담자 학회 윤리기준은 학회 윤리위원회 기능의 범위를 명시하여 사법적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까지 하고 있다.

또한 각 윤리강령은 이런 윤리문제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상담자는 여러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윤리위원회의 조사, 요청, 소송절차에 협력할 것(상담심리학회 윤리강령 8항 가조 (1), (2); 미국상담협회 윤리강령 H.3; 미국 학교상담자학회 윤리기준 H항)을 명시하고 있다.

각 학회의 윤리강령이 제시한 문제의 발견, 자문, 비공식적 조치, 공식적 조치의 단계는 상담자가 윤리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취할 행동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담자가 이를 따르기 위한 세부지침과 양식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윤리문제에 대한 비공식적 조치 결과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자신의 상담에서 나타났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내담자에게 어떻게 어느 정도 알려줄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내담자가 상담윤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여 처리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상담자 윤리강령은 해당 학회 소속 상담자의 윤리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서 내담자의 행동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내담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구체적 지침은 실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건관련 당사자가 되는 각 상담실이나 상담기관에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상담자 및 상담기관은 내담자에게 자신의 권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고 이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대민 서비스 분야의 각종 행정기관, 의료기관, 교통시설 등에서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설문 및 의견제시 카드를 비치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윤리강령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윤리위원회의 운영 절차를 명시하고 상담윤리 신고양식을 제시한 것은 내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청소년상담원은 내담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상담서비스에 대한 평가설문을 실시하고 상담대기실에서 서비스 평가카드를 비치하여 상담 서비스에 대한 내담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내담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하지는 못한 실정이다.

#### 4. 상담자 윤리 교육 및 연구 강화

내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담자가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상담자 양성 과정에서 상담윤리 교육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내의 상담자 양성과정 실적은 그렇지 못하다. 국내 상담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최해림, 2002)에서 전체 응답자 205명 중 13명(6.3%)만이 상담윤리과목을 수강하였다고 하여 상담윤리과목이 상담자 교육과정에 거의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상담윤리를 다룬 과목을 수강한 응답자는 88명(42.9%)으로 나타났으나 윤리를 다룬 수업시간은 3시간 이하 35명(45.5%), 4시간 - 10시간 31명(40.3%), 11시간 이상 11명(14.3%)로 매우 적은 시간동안 윤리를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윤리를 다룬 워크숍을 수강한 응답자는 22명(10.7%)이며 그 시간은 3시간 이하와 4시간 이상이 각각 11명(50%)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국내의 상담자 양성과정에서 상담윤리와 관련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담윤리교육을 위한 교과과정의 개발과 더불어 교재집필, 석박사 학위과정

의 정규 교과로 선정, 비정규적인 각종 상담교육과정에서도 상담윤리 교육 활성화, 상담윤리 워크숍 활성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김봉환, 2002).

또한 상담윤리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김봉환, 2002; 최해림, 2002). 상담윤리에 대한 국내연구로는 김은희(1991)의 상담윤리요강의 방향모색 연구, 장혁표(1999)의 상담에서의 윤리적 문제 고찰 연구, 최원호(2000)의 상담윤리 교육방안 논의, 김혜경(2001)의 상담윤리 필요성 논의, 최해림(2002)의 한국 상담자의 윤리적 태도 및 현황 연구, 김봉환(2002)의 상담자 윤리강령 제정방안 탐색 등이 있다. 기존의 상담윤리 연구들은 상담윤리의 필요성 및 윤리강령의 방향, 상담윤리의 현황조사 등을 다루어 상담윤리에 대한 문제의식은 제기하였으나 구체적인 윤리문제의 지침이나 교육방법을 다룬 연구는 부족하였다.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 상담윤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발생 빈도는 어떠하며 해결 방식은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김봉환, 2002).

그리고 상담자 윤리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현재 상담자들의 윤리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상담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홍성훈(2000)은 의료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서 도덕성을 도덕적 민감성(moral sensitivity), 도덕적 추론(moral reasoning), 도덕적 동기화(moral motivation), 도덕적 품성(moral character)로 구분하는 4 구성요소 모형(Rest, 1983)에 근거하여 도덕적 판단력 검사와 도덕적 민감성 검사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윤리교육의 효과적 방법으로 인정되는 딜레마 토론 방법(Schlaefli, Rest, & Thoma, 1985)을 사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의과대학생들의 도덕판단력을 변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상담윤리와 관련해서도 윤리의식 평가 검사 개발, 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상담에서의 윤리결정 모형으로 Drane(1982)은 즉각적이고 직관적인 윤리판단,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윤리판단의 2단계 모형을 제시하였고, Stadler(1986)는 대립하는 윤리원칙의 명확화, 합리적인 윤리적 전략 수립, 행동개시를 위한 준비, 행동화 의 4단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김은희(1991) 두 모형을 비교하여 Stadler의 4단계 모형이 상담자들의 윤리결정에 더 쉽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 윤리문제에 적용한 연구는 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상담자의 윤리결정 모델을 실제 상담에서의 윤리적 상황에 적용하여 모델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IV. 논의

본 연구는 상담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내담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하고 그 보호방법을 알아보았다. 상담관련학회의 윤리규정 분석을 통해 상담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권리, 상담과정에 참여할 권리, 의사결정의 권리, 동의능력 결여시의 권리 등의 내담자 권리를 살펴보고, 이를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상담구조화, 주지된 동의, 윤리문제 해결절차 수립, 상담자 교육 및 연구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최근 국내 상담관련학회에서의 상담자 윤리 규정 제정, 상담자 양성기관 등의 상담자 교육과정에 상담윤리 과목의 신설 등을 통해 상담자의 상담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상담자 윤리 및 내담자 권리에 대한 논의는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으므로 내담자의 권리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내담자의 권리에 대한 상담자의 의식이 필요하다. 상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상담능력의 향상과 함께 전문가로서의 높은 윤리 의식과 윤리적 행동의 실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의 많은 상담기관에서 무료나 아주 적은 비용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어 내담자에게 시혜적인 서비스로 제공되는데 상담자가 내담자의 권리를 인식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상담의 전문화 과정에서 내담자의 정당한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따를 수 있는 적절한 처리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상담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의료분야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나 나이팅게일 선서와 같은 상담자 선언문 제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내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구체적 지침과 양식 마련이 필요하다. 내담자의 권리로 제시된 4가지 항목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필요하다. 상담과정에 대한 지식을 얻을 권리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상담자가 상담과정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가의 상담과정에 대한 지식 제공의 범위와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상담과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한된 시간 내에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내용의 정리와 전달방법이 명확하여야 한다. 또한 전화 상담이나 사이버 상담에서 내담자에게 상담과정에 대해 제공해야 할 정보를 선정하고 효과적인 전달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통신매체를 통한 상담이 활성화된 현재 매우 필요한 일이다. 상담과정에 참여할 권리에 대해서는 내담자가 참여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과 상담자나 상담기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학회의 윤리 규정은 내담자의 참여권리 영역으로 상담목표설정을 명시하였고 안현의(2002)도 상담목표는 무엇이 될 것인지를 내담자와 합의하여 동의를 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상담 과정에서 상담 목표 뿐만 아니라 상담 방

법, 상담 빈도, 상담료 등의 결정에도 내담자가 참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사항들도 내담자의 권리로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동의능력 결여시의 권리에서는 동의능력 결여에 대한 판단기준의 명료화와 상담에서 미성년자의 판단과 결정 능력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이며, 이들의 보호자의 권리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

셋째, 제정된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상담자 윤리 규정을 제정할 뿐 아니라 이를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상담자들이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윤리 강령의 특성상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이 쉽지 않고, 처벌을 내린다고 윤리강령이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다(김봉환, 2002). 그러나 수련과정의 상담자에 대한 체계적 수퍼비전과 상담기관에서의 상담사례관리 시스템을 통해 상담자의 상담활동에서의 윤리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지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현재 국내의 많은 상담기관은 상담전문인력의 부족과 상담 이외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상담활동에 대한 전문적 지도 감독과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많은 상담자들이 윤리적 문제를 경험하지만(최해림, 2002), 그 문제에 대해 상담자 개인이나 상담기관 차원에서 적절한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김봉환, 2002). 내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들이 상담자 및 상담기관의 현재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하지만 상담 활동의 전문화와 내담자 보호, 그리고 상담자 및 상담기관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기에(안현의, 2002),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상담윤리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아직 상담윤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상담윤리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지침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상담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내담자의 권리를 탐색하고 그 보호 방법을 살펴보았으나 내담자 권리를 살펴보는 근거를 상담관련학회의 윤리규정에 제한하였으며, 그 보호방법에 대한 제언에 그친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런 내담자의 권리가 현재 상담 현장에서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 내담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주지된 동의 양식의 개발, 윤리문제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내담자 권리보호방법의 구체적 방법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 김계현(1995). 상담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봉환(2002). 상담자 윤리강령 제정방안 탐색. 한국상담학회 연차대회 자료집, 58-77, 서울: 한국상담학회.
- 김은희(1991). 상담윤리 결정을 위한 준거로서 상담윤리요강의 방향모색.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규(2002). 상담전 교육 영상자료 개발 및 효과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인규, 김계현(2003). 대학생의 상담준비도 향상을 위한 영상자료 효과연구. 상담학연구, 4권 2호, 187-203.
- 김혜경(2001). 상담에 있어서 윤리의 필요성. 목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명대정(2000). 상담의 전문직화 방안.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안현의(2002). 상담과 수퍼비전의 윤리적 규범.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수퍼비전,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연문희, 강진령(2002), 학교상담, 서울: 양서원.
- 유정이(1997). 한국학교상담 형성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장호(1995). 상담심리학 입문. 서울: 박영사.
- 장혁표(1999). 상담에서의 윤리문제, 사대논문집 38, 1-15, 부산대학교.
- 최원호(2000). 상담윤리 교육에 관한 교육방안 연구. 교수논문집, 4집, 367-390. 한영신학대학교.
- 최해림(2002). 한국 상담자의 윤리적 태도 및 현황. 상담심리전문가대회 자료집, 2-13. 서울: 상담심리학회.
- 한국상담학회(2002), 한국상담학회 윤리강령, 한국상담학회.
- 한국상담심리학회(2004), 상담심리사 윤리강령, 한국상담심리학회.
- 한국카운슬러협회(1979), 카운슬러 윤리강령, 한국카운슬러협회.
- 홍성훈(2000). 의료윤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Ahia C. E., & Martin D.(1993). *The Danger-to-self-or-Others Exception to Confidentiality*, V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ACA).(1995). *Ethical standards*(rev. ed.). Alexandria : Author.
- American School Counselor Association(ASCA).(1996). Ethical standards for school counselors. *The ASCA counselor*, 33, 30.
- Arthur, G., & Swanson, C.(1993). *Confidentiality and Privileged Communication*.



- Alexandria, V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Bray, J., Shepherd, J., & Hays, J.(1985). Legal and ethical issues in informed consent to psychotherapy.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3(2), 50-60.
- Collins, G. R.(1988). *Excellence and Ethics in Counseling*. Nashville, TN : Word Books. 오윤선 역(1995). 기독교와 상담윤리. 서울: 두란노.
- Drane, J. F.(1982). Ethics and psychotherapy : a philosophical perspective: In M. Rosenbaun(Ed.), *Ethics and Values in Psychotherapy*. NY : Free Press.
- Hass, L. J.(1991). Hide-and-peek or show-and-tell? Emerging issues of informed consent. *Ethics and Behavior*, 1, 175-189.
- Pope, K. S., & Vasquez, M. J. T.(2001). Ethics in Psychotherapy and Counseling. San Francisco: John Wiley & Sons, Inc. pp. 315-319.
- Rest, J. R.(1983). Morality, J. H. Flavell & E. M. Markman.(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cognitive development*, vol 3. NY : John Wiley & Sons.
- Schlaefli, A., Rest, J. & Thoma S.(1985). Does moral education improve moral judgement? : A meta-analysis of intervention studies using DIT.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5, pp. 319 - 352.
- Schmidt, J.(1999). Counseling in Schools : Essential Services and Comprehensive Programs. Allyn & Bacon. 노안영 역(2000). 학교상담. 학지사.
- Smith, D.(1990). Intergrated Therapy : A Comprehensive Approach to the Methods and Principles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Grand Rapids : Baker.
- Stadler, H.(1986). Preface to the special issu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4, 328-330.

\* 논문접수 2004년 7월 12일 / 1차 심사 2004년 8월 23일 / 2차 심사 2004년 11월 16일

\* 김인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였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청소년상담원 조교수로 재직중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대학생의 상담준비도 향상을 위한 영상자료 효과연구』, 『상담구조화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고찰』 등이 있다.

\* e-mail: ikkim@kyci.or.kr

Abstract

## A Review on the Rights of Clients

Kim, In-Gyu\*

The ethics in counseling and rights of clients become important issues while professionalism of counseling is improv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rights of clients at counseling process by reviewing a few ethics codes of counseling associations and to find some ways to protect the rights. There are the right of information about counseling process, the right of participation in counseling process, the right of determination, and the right while ability to agree is deficient. Counseling structuring, informed consent, process of conflicts resolution, counselor education, and research on this issues are proposed as ways to protect the rights of clients. Some issues and tasks on the rights of clients are discussed.

Key words: Rights of clients, Ethics in counseling, Informed consent, Ethics codes

---

\* Professor,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